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루마 팽홀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alay Houses

- case study of Rumah Penghulu -

Author 주서령 Ju, Seo-Ryeong / 정희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고영은 Ko, Young-Eun / 정희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

Abstract Malaysian traditional houses are basically post-and-beam structures raised on pillars, with gabled roofs. They were designed and built by the people themselves to meet specific needs, accommodating the values, economies and ways of life of cultures that produce th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orm and culture of Traditional houses in Malaysia through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o summarize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houses of Malaysia in the aspect of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e is the climate perspective, for which the analysis was made on the primar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limate, material, structure of the vernacular houses. The other one is the social-cultural perspective which try to find the religion, belief, life style and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 which controlled the forms of the housing under the surface. As a result, this study summarise and find the outstanding and unique meaning and defini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Malaysia. The second part is to survey the specific case of the traditional house. Rumah Penghulu which were located in Kuala Lumpur were analyzed. As a result, this study summarise and find the formal and symbolic features of the traditional Malay houses. We hope that this study addresses the blank area in Korean housing studies about Southeast Asia countries which have not been clearly introduced yet.

Keywords 말레이시아 전통주택, 루마 팽홀루, 전통주거, 토속주거, 말레이시아
Traditional Malay Houses, Rumah Penghulu, Traditional House, Vernacular House, Malaysia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동남아시아¹⁾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축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언론보도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의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많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동남아시아의 주거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첫 단계로 말레이

시아 전통주거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거는 목재를 이용한 고상식 주거이며, 덥고 습한 열대성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경사가 급하고 처마가 긴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벽면은 매우 개방적인 형태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거의 정의는 상당히 기후결정론적인 관점이다.

토속주거(vermacular house)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기후결정론적 관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토속주거는 단일론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1)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의 아세안(ASEAN) 회원국가 10나라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면해 있는 대륙부 동남아시아(Mainland Southeast Asia)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와 도서부 동남아시아(Insular 또는 Island Southeast Asia)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병욱,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3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2006, p.1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cl@khu.ac.kr

**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09-0064763)

형태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의 기후, 재료, 기술 등은 단순한 요인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주거를 포괄적 범위의 사회문화요소의 산물로 이해하거나²⁾, 다학제적인 접근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³⁾고 기술되고 있다.

토속주거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관점들을 종합하면 주거의 물리적 형태의 일차적 특성을 결정짓는 기후론적 관점과 그 물리적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배경적 인자를 찾으려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⁴⁾

본 논문은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특성을 상기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기후론적 관점으로는 기후, 지역, 재료, 구조, 기술 등의 요소와 주거와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사회·문화적특성으로, 주택형태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종교, 가족관계, 사회조직, 영역성, 생활양식 등과 주거와의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전통주거 관련 문헌들의 탐색으로부터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일반적 특성을 기후론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하여, ‘루마 팽홀루(Rumah Penghulu)’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보완하여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체계화된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특성은 향후 시행될 말레이시아 현대주거에 대한 연구 수행 시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주거문화 및 생활양식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동남아시아주거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전통주거 ‘루마 팽홀루’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분석틀⁵⁾은 토속주거(Vernacular House)를 연구하는 여러 이론가들의 이론을 종합하여 도출한 ‘기후론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적용하여 말레이시아

주거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은 문헌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참고한 대표적 문헌은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에 대한 유형적 분석을 시도한 ‘Order in Traditional Malay House form’⁵⁾와,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에 대한 교과서로 여겨지는 ‘The Malay House’⁶⁾와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Vol.5 Architecture’ 등이다. 문헌분석 결과는 분석틀에 의거하여 ‘기후론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사례조사는 2008년 1월과 2009년 3월에 두 차례 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으로는 사진촬영, 스케치가 실시되었고, 루마 팽홀루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Badan Warisan Malaysia⁶⁾ 관계자분과 수차례 인터뷰와 자문을 받아 실시되었다. 사례분석은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의 단계이므로, 보편적 기술방법인 평면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의 체계 내에서 주거의 기후론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괄하고 기술하고 있다.

2.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일반적 특성

2.1. 기후론적 관점

(1) 파일기초의 고상식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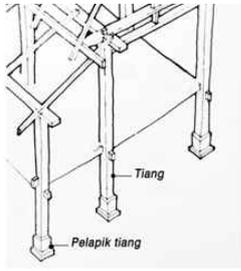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위에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땅 위로 올려 지은 고상식 건축이라는 점이다. 초기의 주택들은 강과 해안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높게 들어 올렸으며 이는 땅의 습기를 피하고 빈번하게 내리는 폭우가 홍수로 이어지는 것에 대처하는 이상적인 해결방법이었다. 또한 야생 동물이나 해로운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집을 보호하였으며 높은 바닥의 틈으로 통하는 공기의 흐름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택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기단부의 기둥은 주택을 지지하는 구조체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무게를 잘 지지하고 견딜 수 있도록 좋은 질의 목재를 선택하여 건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둥은 기초위에 올려 세워지는데 기초가 되는 주춧돌은 펠라픽 티앙(pelapik tiang)이라고 하며 나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기둥은 티앙(tiang)이라고 하며 말레이시아 관습에 따라 하나의 나무에서 전체 집에 필요한 기둥을 만들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골라 기둥들을 잘라낸다.

2)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1969
 3) Oliver, Paul, Built to Meet Needs ; Cultural Issues in Vernacular Architecture. Amsterdam: Architectural Press, 2006
 4)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12
 5) 토속주거에 대한 연구현황과 종합적 분석에 의한 관점의 도출과정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인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1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6) www.badanwarisan.org.my



a) 펠라픽 티앙



b) 티앙세리

<그림 1> 전통주택 기초와 중심기둥
출처: Lim Jee Yuan(1987) a: p.100 b: p.104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주택의 바닥 면까지의 높이는 계단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초기 계단 형태는 나무 막대기를 서로 엮어 지지대와 단을 만들었다. 계단 한단의 높이는 평균 200~300mm이며, 계단의 수는 반드시 홀수이다. 기단의 높이는 매우 다양한데, 계단의 수는 3~9개의 분포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기단의 높이는 1,350~3,150m의 분포를 나타낸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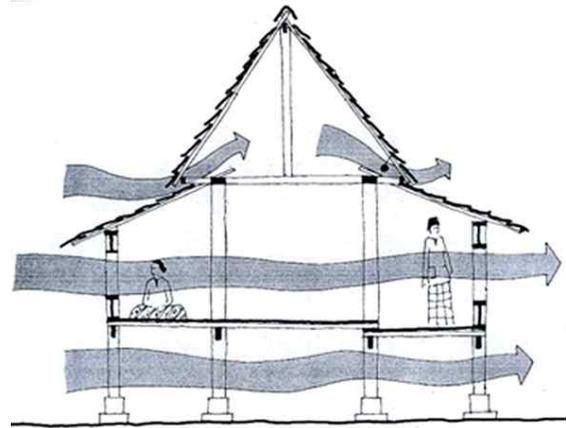
기단부의 계단은 주택에서 최소 2개로 전, 후면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된다. 주택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계단 수가 달라지거나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말라카 지역에서는 주택 전면부 계단이 콘크리트구조에 컬러풀한 도자기 타일로 덮여졌으며 형태도 독특한 양식을 가진다. 이는 혼합된 건축양식으로 유럽과 중국 주택에서 영향을 받아 차용되었다. 곡선으로 뻗어지는 형태, 광택이 나는 장식적인 타일, 화려한 색상, 다양한 디자인의 문양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지역적, 독자적 특색을 강하게 표현한다.⁸⁾

(2) 통풍의 극대화된 구조

동남아시아의 고상식 주거는 주택 전체가 통풍이 극대화된 구조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과일기초의 사용으로 거주공간 아래에 찬 공기를 흐르게 하고, 맞바람을 불도록 전면 개방이 가능한 창을 마주보게 배치하며, 경사가 가파른 박공지붕은 뜬 지붕으로 구성되어 거주공간 상부의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문순 기후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진다.⁹⁾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지붕은 덥고 습한 열대기후를 고려한 형태로 경사가 급한 긴 박공지붕(long gable roof)이며, 이 위에 아탑(attap)¹⁰⁾을 덮어 만든다. 급한 경사도는 잦은 비가 내리는 기후에도 빗물이 지붕에 스

며들지 않도록 빨리 흘러내리게 하며 자연재료로 만든 아탑은 실내 통풍과 온도조절에 유리한 기능을 가진다.



<그림 2> 말레이 주택의 통풍구조
출처: Lim Jee Yuan (1987) p.7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재료의 부족, 기술의 발달, 외국문물의 유입 등은 지붕에도 변화를 미쳤다.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되고 유입되어 아탑은 아연판, 타일, 석면(zinc, tiles, asbestos)등으로 대체되었으며 식민지 시대의 영향은 새로운 유형의 지붕들을 만들었다.

벽은 기둥 사이의 빈 공간을 목재패널로 막은 형태로 열대기후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으로 계획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대한의 자연환기를 유입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창문이 계획되었지만, 공간에 따라 창문의 크기와 형태를 차별화하여 공간의 영역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도 파악된다.

말레이시아 실내 벽은 단일공간이거나 매우 단순한 간막이벽이나 천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간막이벽 윗부분은 환기와 통풍을 위해 뚫어놓거나, 조각된 패널로 처리되었다.

바닥의 경우에도 주로 길다란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마루판 사이의 틈 공간을 통해 아래의 찬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때로는 기단부에서 불을 피워 실내로 연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기를 쫓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3) 목조가구식 구조

말레이시아 주택은 기둥과 보(past and beam)의 주요 부재로 이루어진 목재 가구식 구조이다.

3×4의 모듈로 주요 기둥이 세워지고 이 위에 수평 들보가 얹어지고, 경사가 꺾여지는 박공지붕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구조방식이다. 구조부재들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접합 등의 방식으로 구축되어 해체, 재조립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민가들은 마을 내 전문가가 또는 주민들이 품앗이 형태로 직접 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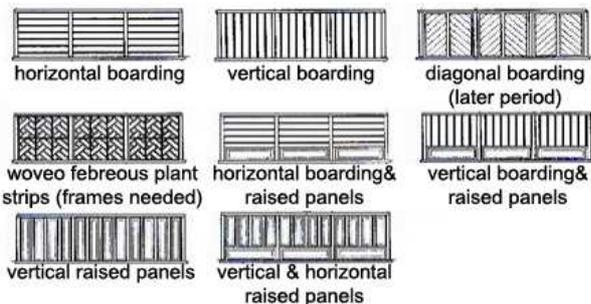
7) Syed Iskandar Ariffin, Order in Traditional Malay House form, Oxford Brookes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2001, pp.232~233
8) Chen Voon Fee,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5 Architecture, Archipelago Press, 1998, p.25
9) 주서령·김민경, 앞의 글
10) 말레이시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자수(nipah, rumbia, bertam 등)의 잎을 엮어 만든다. 낮에는 실내의 더운 열을 방출하고 밤에는 내부의 열을 잡아두어 내, 외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뛰어난 절연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림 3> 전통주택 구조
출처: Yao-Ru Chen(2008) p.248

주택구조의 주요부재는 기둥(11), 보, 지붕들보, 도리로 *cengal, belian, merbau, resak*과 같은 경질목재로 이루어지고, 부가적 구조부재인 서까래, 장선, 셋기둥, 창대들은 *meranti jelutong*과 같은 중간정도의 경질목재가 사용되었다.¹²⁾

벽은 주요 기둥으로 구축된 형틀에 대나무 줄기나 목재로 패널을 짜서 덧붙이게 되는데, 재료가 엮어진 배열에 따라 수직, 수평, 대각선이나 이것들이 조합된 입면이 만들어졌다. 또한 거주자에 따라 격자무늬, 전통문양, 양각, 음각 등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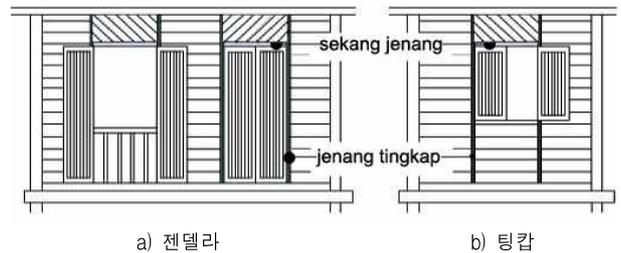
<그림 4> 전통주택 벽 디자인 패턴
출처: Syed(2001) p.162

패널의 배열방법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만들 수 있지만 창문에 따라서도 다양한 벽의 형태를 보인다.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낭 텡갑(jenang tingkap)이라는 문설주(jamb)가 필요하다. 이것은 창문양쪽 가장자리에 놓인 목재 틀로, 이것을 기준으로 벽과 창문의 경계가 나뉘지며 입면의 형태와 비율이 달라진다. 지낭 텡갑 상부에는 생강 지낭(sengkang jenang)이라는 목재 틀이 놓이며, 이 위는 화려하게 조각된 목재투각이나 목재패널 형태의 뚫린 환기구가 생기게 된다.

지낭 텡갑은 덧문이 달린 여닫이 형태로 벽과 동일한

무늬나 색채 혹은 다른 무늬나 색채의 덧문이 사용되며 문짝패널이 목재 루버로 설치된 경우도 있다. 루버가 달린 주택은 창문을 닫아도 루버를 들어 올려 공기의 유입을 가능케 해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 환경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간을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햇빛이 강한 낮에는 루버의 열린 정도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채광과 통풍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창문과 루버의 개폐여부는 다양한 주택입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주택의 심미적 효과를 높인다.¹³⁾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에서 창문은 형태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긴 창과 짧은 창이다. 긴 창은 쟈넬라(jendela)이고 짧은 창은 텡갑(tingkap)이다. 쟈넬라는 생강 지낭 아래의 창문부분이 모두 뚫려있으며 덧문 안쪽으로는 안전을 위해 나무로 만든 그릴이 설치되어 있다.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수준에 따라 세심하고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그릴들은 창문을 열었을 때 주택의 화려한 의장적 요소로 활용된다. 텡갑은 짧은 창으로 중간부만 뚫려있으며 하부는 벽면과 동일한 재료로 막혀있다. 이 창문은 주로 루마 이부나 다푸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림 5> 전통주택 창문의 유형

2.2. 사회문화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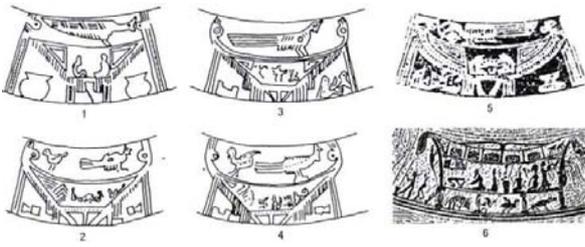
(1) 주택은 종교적 상징의 대상이다.

동남아시아에는 토착신앙에 기반을 둔 주술과 정령 숭배적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 강, 숲, 산 등에 기거하는 자연의 정령과 초자연적 힘을 갖는 장소나 사물을 숭배한다. 주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반영되는데, 주택 최상부로부터, 지붕(Bumbung Rumah=roof), 거주공간(Badan Rumah=body), 기초(Bawah Rumah=underneath)라는 위계는 각각 신 아래 인간, 그 아래 동물이 산다는 종교적 위계와 상징성을 내포하며, 인간 삶의 중요한 단계인 탄생, 생활, 죽음을 의미한다.¹⁴⁾ 이러한 형태는 동남아시아가 같은 문명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동고’¹⁵⁾의

11) 주요 하중을 견뎌내는 기둥(tiang)은 일반적으로 사방 12cm 각제이다. Chen Voon Fee,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5 Architecture, Archipelago Press, 1998, p.22
12) Chen Voon Fee, 앞의 책, p.22

13) Lim Jee Yuan, The Malay House: Redis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Institut Masyarakat, 1987, pp.107~108
14) Schefold, S. & Domenig, G. & Nas, P.(Eds.). Indonesian houses. KITLV Press Leiden. 2003, pp.23~24
15) ‘동고’(bronze drum)가 베트남 동 선(Dong Sun)에서 대량 발견되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발

조각을 통해 파악한 위계와 같은 맥락이다.



<그림 6> 동고에 나타난 주택의 형상
출처: Waterson(1997)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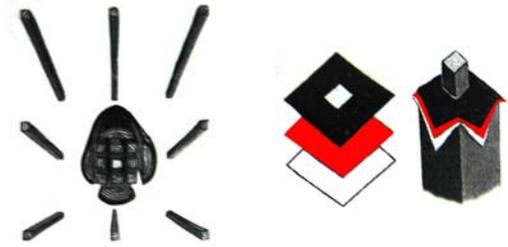
주택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토착신앙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건축은 주술자(bomoh)¹⁶⁾ 주택소유자, 목수들, 이웃들과 함께 진행된다. 건축은 주술자가 주택의 기초(base)를 찾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술자는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피우고 부지로 선택된 땅을 축복한다. 이후 등나무(rattan) 줄기 하나를 안주인(rumah ibu)이 양팔을 벌린 길이만큼 자르고 같은 길이의 막대기를 하나 더 만들었다. 주술자는 만들어진 등줄기를 막대기에 묶고 난 뒤 다시 향을 피워 주술을 외우고 주변사람들이 복창하도록 한다. 기도가 끝나면 등나무 줄기가 묶여진 막대기는 부지에 세우고 옆에는 물이 가득 채워진 양동이를 접시 위에 올려놓는다. 다시 한 번 주술자와 안주인의 말을 복창하는 것으로 그날의 의식은 끝이 난다. 다음날 새벽에 안주인은 막대기에서 등나무 줄기를 풀러 길이를 살펴보고 옆에 놓인 양동이의 물도 확인한다. 만약, 밤사이 등나무 줄기나 막대기의 길이가 늘어났거나 물이 양동이에서 흘러 넘쳐 접시에 담겨져 있으면 집의 영혼(semangat rumah)이 기둥에 산다고 여겨져 비로소 중심 기둥인 티앙 세리(tiang seri)가 세우게 되며 이는 건축의 시작됨을 의미한다. 우주의 기운이 이곳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티앙 세리는 기둥들 중 가장 신성하게 여겨진다. 또한 정교하게 조각된 모습은 주택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준다. 또한 ‘하나의 나무로 하나의 집을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의 기둥(tiang)들은 하나의 나무에서 잘린 것으로 사용되며 잘린 위치대로 주택 기둥의 위치를 맡게 된다. 티앙 세리는 주택의 중심에 세워지므로 나무의 가장 중심부에서 잘린 기둥으로 사용한다.¹⁷⁾

각 기둥들의 윗부분에는 나쁜 기운을 막는 의식으로

견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인도와는 상관 없는 독자적 문화권이라는 주장이다.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유적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 ‘동고(bronze drum)’로써 주거의 형태적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기원전 600-400년과 기원후 100년 사이의 시기에 동고로써 동선문명(Dong Son Culture)의 유물이다.

- 16) 말레이시아에서 보모(bomoh)라고 불리는 주술사는 농사철이라든지 출산, 건축 등 마을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이슬람 의사, 무당, 전통 치료사 등의 역할을 한다.
- 17) Chen Voon Fee, 앞의 책, pp.96-99
Lim Jee Yuan, The Malay House: Redis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Institut Masyarakat, 1987

세 장의 정사각형 형겼들을 놓게 되는데 나쁜 기운과 영혼들을 의미하는 검정색을 맨 위에 놓고 삶과 용기의 빨간색, 청결, 순수함의 흰색을 순서대로 놓는다.



<그림 7> 목재에서 기둥을 가공하는 방법(좌)
기둥의 토착 신앙적 요소(우)
출처: Chen Voon Fee(1998) p.17

동남아시아 주거에서 공통적으로 지붕은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고 매우 과장된 형태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빗물을 속히 흐르게 하여 열대성 폭우와 긴 우기(雨季)를 견뎌내기 위한 대표적 기후적 대응 장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붕은 너무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후론적 관점만으로 지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붕은 동남아시아 주거에서 가장 우세한 건축적 표현 요소이며, 지붕의 과장된 형태를 통하여 거주자의 지위 및 그 건물의 역할에 대한 상징이 반영되어 나타난다.¹⁸⁾

말레이시아 지붕 또한 기능적 요구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으며, 건축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지붕의 유형이 매우 중요한 주택유형의 변수 요인이다.

지붕유형은 크게 토착양식과 혼합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긴 박공형태의 붐붕 판장(bumbung panjang)¹⁹⁾이 토착양식이며 혼합양식은 식민지시대에 외국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형태로 붐붕 리마(bumbung lima)²⁰⁾, 붐붕 페락(bumbung perak)²¹⁾, 붐붕 리마스(bumbung limas)²²⁾

- 18) Ju, Seo Ryeung, Saari Omar, Ko, Young Eun,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lay House in the Kampong Baharu(Kuala Lumpur), GEST(Green Tech, Eco Life &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the Cities of Tomorrow), 1st Ed., Seoul, 2009
주서령·김민경, 앞의 글
- 19) 붐붕 판장은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형태로 말레이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긴 박공지붕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맞배지붕과 비슷한 모양이다. 간단한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어 증축과 개조가 용이하며 지붕조합에 따른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 20) 붐붕 리마는 모입지붕(hipped roof)으로 정상의 큰 용마루와 사방으로 뻗은 추녀마루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우진각 지붕과 비슷하며 식민지시대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
- 21) 붐붕 페락은 맞배지붕(gambrel roof)으로 식민지시대에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팔작지붕과 비슷하고 붐붕 판장보다 정교한 구조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이 지붕은 말레이시아 서쪽해안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서쪽해안에서도 북쪽에 집중되어 있다.
- 22) 붐붕 리마스는 주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지붕으로 피라미드 형태(pyramidal roof)이며 주로 모스크(mosque)¹⁾와 ‘수라우(surau)’에서 사용한다. 이 지붕은 주로 말라카(Malacca)와 남서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수라우’는 말레이어로 ‘작은 모스크’라는 의미로 모스

등이 있다.²³⁾

<표 1>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지붕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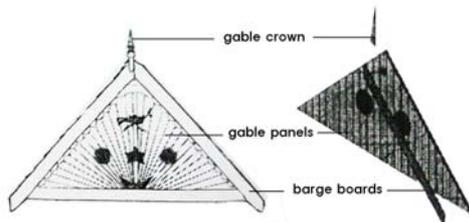
지붕 유형	뿔뿔 판장 (bumbung panjang)	뿔뿔 리마 (bumbung lima)	뿔뿔 페락 (bumbung perak)	뿔뿔 리마스 (bumbung limas)
양식	토착양식		혼합양식	
그림				
사진				

지붕의 세부 조형요소들로 박공 첨단(gable crown), 박공 널(barge boards), 박공 패널(gable panels) 등이 있다.²⁴⁾

박공 첨단은 지붕의 뾰족한 끝부분을 강조하는 장식적 요소이다. 둥글려진 나무로 끝이 점점 뾰족하고 가늘어진 모양으로 거주자의 기호에 따라 섬세하고 정교하게 작업되어 지붕을 장식한다. 이러한 장식은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박공 첨단을 뿔이 있는 버팔로의 머리를 얹기도 하며, 목재를 X형태로 교차하여 장식하거나, 나가(naga) 또는 거대한 물뱀 형태로 목재로 화려하게 조각하여 얹어서 장식한다.

박공널은 지붕옆면의 가장자리나 처마에 고정된 띠 모양의 널이다. 목재로 만들어지며 박공에 쓰이는 다른 요소들과 비슷한 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택은 반복적인 패턴들을 조각해 장식하지만 장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박공 패널은 지붕형태로 인해 옆면의 빈 공간인 삼각형부분을 막은 것으로 테바 레이어(tebar layer)라고 불린다. 지붕의 뿔린 부분을 베워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목재 널의 배열에 따라 패널의 무늬가 만들어진다. 수직과 대각선의 패널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대칭무늬, 방사형, 수평 등의 배열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별, 달과 같은 종교적 무늬나 다양한 문양들이 패널에 조각되어 통풍과 환기를 위한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 요소가 함께 고려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지붕단면의 장식요소

크보다 작은 규모의 기도하는 곳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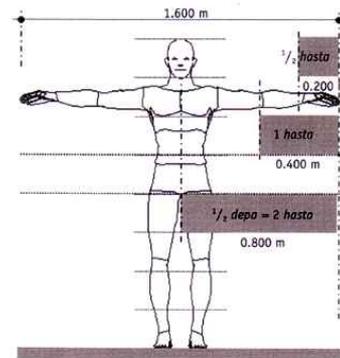
23) Lim Jee Yuan, 앞의 책 pp.22~25

24) Syed Iskandar Ariffin, 앞의 책, pp.163~166

(2) 주택에 신인동형론적 사고가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지를 선정할 때에 주택 안주인의 양팔길이를 기준으로 의식이 행해졌던 것처럼 각 주택의 주요 치수는 안주인의 신체치수로 결정된다.

대표적인 신체치수 단위는 데파(depa)와 하스타(hasta)로 안주인이 양팔을 벌린 길이를 데파, 팔꿈치 길이를 하스타라고 한다. 평균 데파 길이는 1.6m이며 1데파는 4하스타이다. 즉, 1하스타는 0.4m이다.²⁵⁾



<그림 9> 공간측정 기준인 신체치수 단위

출처: Syed (2001) p.67

이러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주택의 공간명칭에서도 나타나는데, 말레이어로 루마(rumah)는 집, 이부(ibu)는 어머니라는 의미로 '루마 이부(rumah ibu)'는 '어머니의 집'을 상징하면서, 주택의 중심공간으로 가족들의 기도실, 침실, 가사실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가지며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가족공동의 기능을 가진다.

주택을 사람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신인동형론적 사고는 말레이시아 주택의 주요 조형요소에서도 나타난다. 지붕은 머리(kepala), 거주공간은 몸(badan), 기단부(kaki)는 다리를 상징하며, 또한 주택 전면에 위치한 세람비(serambi)와 후면의 다푸르(dapur)도 사람의 앞, 뒷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다.²⁶⁾

전면에 위치하는 세람비는 얼굴로 의인화되어 다른 공간들에 비해 가장 화려하고 개방적인 입면형태로 계획되어 전면의 벽을 바닥부터 시작하는 긴 창으로 계획하여 창문을 전부 열었을 경우, 열린 공간은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된 장식들과 어우러져 빈 공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입면구성의 독특함을 보인다. 이처럼 세람비에 화려한 입면을 계획하는 것은 이곳이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사교적 공간이며 주택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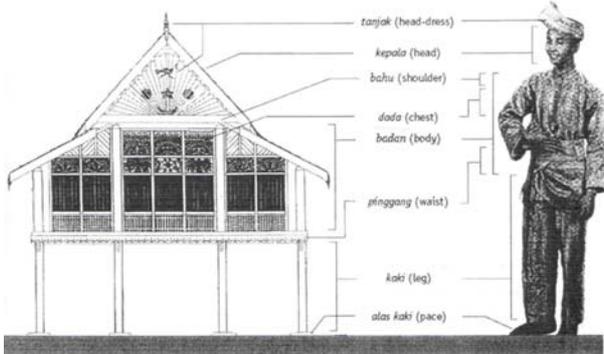
주요 생활공간인 루마 이부도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공간으로 화려한 입면을 보이지만 가족들이 생활하는 사적인 곳으로 세람비에 비해 덜 화려하며 창문의 수

25) Syed Iskandar Ariffin, 앞의 책, p.67

26) Syed Iskandar Ariffin, 앞의 책, pp.54~57

도 적고 창문의 크기도 작게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다.

부엌인 다푸르는 사람의 향문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장식이 적고 가사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형태적 상징 뿐 아니라 공간사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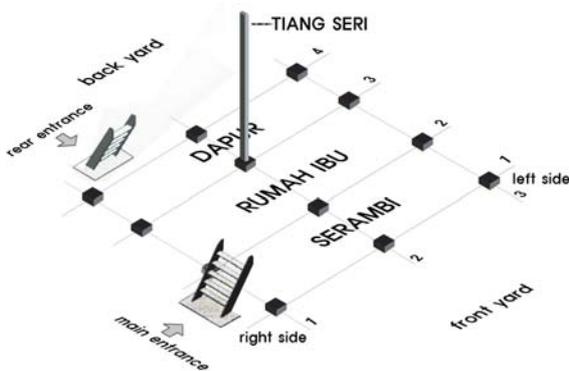


<그림 10> 주택의 입면과 신체의 상징적 비유
출처: Syed(2001) p.56

(3) 주택공간에 영역성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의 주거는 다소 큰 규모의 주택은 공간이 용도별로 분화되고, 각각의 채가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에 가장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3개의 주요공간으로 중심공간 - 루마 이부 (rumah ibu), 부엌 - 다푸르(dapur), 베란다 - 세람비 (serambi) 이다. 각 공간들의 구분은 최소한의 칸막이와 단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공간들은 중심공간 (rumah ibu)를 주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⁸⁾

주택의 공간들은 기둥의 수에 의해 크기와 형태가 결정되어 지는데 기본모듈은 3×4, 4×4가 일반적이데, 이때 기둥들의 중심에 티앙 세리가 세워진다. 주택의 전면과



<그림 11>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평면구성 개념도
출처: Syed(2001), p.262

27) Syed Iskandar Ariffin, 앞의 책, 2001
28) Yao-Ru Chen, Syed Iskandar Ariffin and Ming-Hung Wang, The Typological Rule System of Malay Houses in Peninsula Malaysia, JABBE, vol.7 no. 2x, 2008, pp.247~254

후면에는 각각 하나의 계단이 놓이며 앞쪽부터 순차적으로 세람비, 루마 이부, 다푸르가 위치하게 된다.

루마 이부는 주택의 중심공간으로 거주자들의 기도실, 침실, 가사일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가지며 가장 사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다. 동시에 대부분의 집안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도 지닌다. 공간 내부의 가족구성원 간 사적인 공간구분은 천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구분하는 정도이다.

부엌인 다푸르는 다용도(utility)공간으로 항상 건물의 후면에 배치된다.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며 요리를 하거나 마을의 여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또한 가족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바닥 위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먹는다.

세람비는 길고 좁다란 베란다로 현관부분과 직결되어 있으며 주택의 전면에 위치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람비는 주택의 얼굴로 여겨져 다른 공간들보다 심미적, 의장적 요소가 더욱 고려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공간은 전통양식이 인습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자긍심과 주체성이 표현된다.²⁹⁾ 또한, 외부에서 출입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접대(reception) 공간으로 방문자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사교적인 기능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이 3개의 기본적인 주요공간 이외에 좀 더 확장된 기본공간으로는 안정(anjung)과 셸랑(selang)을 들 수 있다. 안정은 세람비에서 증축된 공간으로 현관이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가족구성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셸랑은 루마 이부와 다푸르를 연결하는 통로로 주로 여성들의 사적 공간으로 이용된다. 다푸르가 있는 경우는 이곳에 별도로 계단이 설치되며 이곳으로 여성의 손님과 가족들이 드나드는 제2의 현관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배치형태에는 공간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명확한데, 손님접대, 사교, 가족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현관역할을 하는 안정(anjung)과 주로 남자손님을 접대하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인 세람비(serambi)는 공적 영역에 해당되며, 주택의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취침, 기도, 가사일, 가족활동의 장소인 루마 이부(rumah ibu)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며 여자들의 사적공간이며 부엌인 다푸르(dapur) 그리고 루마 이부와 다푸르를 연결하는 통로공간으로 여자 손님의 접대 공간이기도 한 셸랑(selang)은 사적공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배치 위계상 집의 전면부에는 공적인 기능, 후면부는 사적인 기능이 강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간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별 공간 구분이 나타나는데, 주거는 성에 의해 명백하게 영역이 구분되며 이

29) Syed Iskandar Ariffin, 앞의 책, pp.169~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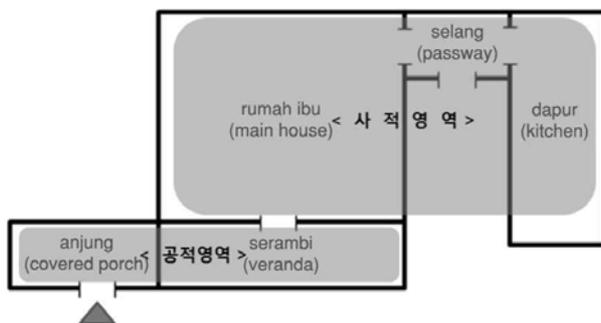
<표 2>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영역별 공간특성

공간명	위치	모습	공간특성
안정 (anjung)			· 현관부분 · 손님접대 및 사교공간 · 가족구성원들의 휴식공간
세람비 (serambi)			· 길고 좁은 베란다 · 현관부분과 연결 · 남성손님 접대공간
루마 이부 (rumah ibu)			· 주택의 중심공간 · 사적, 종교적 성격 · 기도실, 침실, 가사실 등의 가족활동 공간
셀랑 (selang)			· 복도공간 · 루마 이부와 다푸르를 연결 · 여성손님 접대공간
다푸르 (dapur)			· 부엌 · 건물의 후면에 배치 · 여성들의 사적공간

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연령이나 노동의 분화에 의해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⁰⁾

주택의 전면부에 위치한 세람비와 안정은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식적 손님은 주로 이 공간에서 행해지며, 후면부에 위치한 다푸르, 셀랑은 여성의 공간으로 여성의 손님맞이는 주로 안채와 부엌을 잇는 통로 공간인 셀랑에서 이루어진다. 주택의 주요 생활공간인 루마 이부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남자 외부손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에서 주택을 자연세계의 질서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주택조형의 비율과 장식을 인간 형상이 상징화된 대상으로 그리고 주거공간 배열에서도 인간의 관습과 생활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하는 전통적 주거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2> 말레이시아 주택의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출처: 주서령 외(2010)

30) Sparkes, S. & Howell, S. (Eds.), The House in Southeast Asia. Routledge Curzon, 2003, p.7

3. 루마 팡홀루(Rumah Penghulu)의 사례 분석

3.1. 역사적 배경³¹⁾

말레이어로 ‘루마’는 집, ‘팡홀루’는 촌장을 의미한다. 즉, 루마 팡홀루는 촌장의 주택이며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도 사용되었다. 이 주택은 원래 말레이시아 반도 북서쪽의 케다주(Kedah state)에 있는 Bandar Bagaru, Mukim Bagan Samak의 작은 마을인 Sungai Kechil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Abu Seman Bin Mayan 촌장에 의해 1920년 중반부터 1930년 초반에 걸쳐 지어졌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Ibrahim bin Abu Seman은 촌장의 직함과 집안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Ibrahim은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결국, 이 주택은 빈 집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Ibrahim의 가족들은 아들이 없어 주택을 물려주지 못하자 1995년 중개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문화유산기관인 Badan Warisan Malaysia에 주택을 팔았다. 이 기관은 루마 팡홀루를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으로서의 문화유산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1996년 5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중심부로 이전이 결정되어, 철거가 시작됐다. 주택을 철거하기 전 모든 요소들은 전통의 모습을 재현하고 정확하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치수와 개수를 자료로 남겨졌다. 도면,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은 재건축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들로 남겨졌지만 그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로 몇 개의 자재들은 없어서 복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96년 8월, 중심 기둥인 ‘티앙 세리(tiang seri)’가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루마 팡홀루의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주택을 처음 지을 때 건축년도를 알 수 있도록 그 해의 동전을 티앙 세리에 놓는데 이 의식에 따라 처음 발견되었던 1916년의 동전과 함께 1996년의 동전이 함께 묻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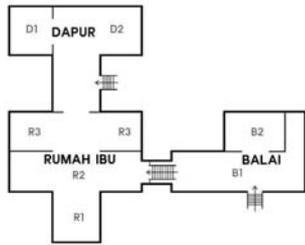
주택의 복원식은 1997년 11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복원 과정을 통해 루마 팡홀루는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모델로 여겨지고 있으며 2000년 UNESCO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수상과 2003년 ASEANTA 우수상 수상을 통해 전통 보존의 중요성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2. 평면적 특성

루마 팡홀루의 평면형태는 일반적 말레이시아 주택평

31) 루마 팡홀루의 역사는 현재 이 주택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Badan Warisan Malaysia의 역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면과 다소 다르다. 이 집은 마을 촌장의 집으로 일반 집에 없는 ‘발라이’라는 공간이 있고, 현관역할을 하는 ‘안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다른 공간구성은 유사하다. 평면은 크게 발라이(Balai), 루마 이부(Rumah Ibu), 다푸르(Dapur)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3> 루마 팽홀루의 평면³²⁾

(1) 발라이(Balai)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입구에는 안정이 있다. 하지만 루마 팽홀루는 일반 주택이 아닌 직무의 기능을 겸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안정대신 발라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간은 촌장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폐자밭³³⁾(pejabat)과 빌릭 팽홀루(bilik penghulu)³⁴⁾ 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남성들의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데 사용된다.

발라이는 낮은 아치형 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방문자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들어오게 되어 지역의 우두머리인 촌장에 대한 경의와 겸손을 표하게 된다. 이 입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좁고 긴 베란다 형태의 폐자밭(B1)이 연결되어 있다. 이 공간은 대부분 손님들을 접대하는 사교공간으로 활용되며, 가끔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루마 이부와 폐자밭 사이를 파티션으로 막아두기도 한다. 이 공간 내부계단을 통해 루마 이부로 연결된다.



<그림 14> 발라이 입구와 내부

폐자밭의 입면은 안정과 같이 벽이 없이 난간으로만 처리되어있고, 계단 상부와 창문 상부는 아름다운 투각으로 장식되어 집의 위엄을 더하고 있다.

폐자밭 앞에는 빌릭 팽홀루(B2)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32) B1:폐자밭(Pejabat), B2:빌릭 팽홀루(Bilik Penghulu), R1:루앙 타무(Ruang Tamu), R2:세롱 데판(Serong Depan), R3:빌릭(Bilik), D1:다푸르(Dapur), D2:루앙 막간(Ruang Makan)

33) 폐자밭(pejabat)은 말레이어로 ‘사무실’이라는 뜻이다.

34) 빌릭(bilik)은 말레이어로 ‘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릭 팽홀루는 촌장의 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곳이 바로 실질적인 직무를 보는 사무실로 사용된다.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책상과 몇몇 가구들이 놓여 있으며 커뮤니티 및 기타 행정사항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이곳에는 안채인 루마이부나 셸랑으로 외부에 눈에 띄지 않고 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발라이는 루마이부에 비해 낮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으며 지면에서 올려진 바닥의 높이도 약 7인치(inch)정도 낮게 지어졌다.



a) 폐자밭 b) 빌릭 팽홀루

<그림 15> 발라이의 공간

(2) 루마 이부(Rumah Ibu)

발라이의 계단을 통해 연결된 루마 이부(rumah ibu)는 루앙 타무(R1, ruang tamu), 세롱 데판(R2, serong depan), 빌릭(R3, bilik)의 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주택의 중심공간으로 가장 사적이며 신성한 부분이다. 또한 다른 공간들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 잠을 자거나, 기도, 공부, 바느질, 다림질 등 가족 구성원들의 집안활동이 거의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결혼이나 기타 축제가 있을 때에도 이곳을 사용한다.

루마 이부의 바닥 높이는 주택에서 가장 높으며 땅과 바닥사이의 외부 공간은 더운 낮 시간 동안의 가족들의 휴식공간이며, 가사작업 공간 때로는 불을 사용하는 보조 부엌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토속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닥이 높이 올려져 있는 고상식 주거가 동물이나 벌레의 공격을 피하는데 유리하고 홍수에 안전하도록 하는 기능적 이유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나, 주택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가장 높이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루마 이부의 내부 천장고 역시 다른 공간들 보다 높는데 즉, 바닥의 높이와 내부의 천



a) 루앙 타무 b) 세롱 데판

<그림 16> 루마 이부의 공간

장 높이를 통해 주택의 중요한 공간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인들은 좌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자나, 식탁, 작업대 등과 같은 가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앉거나 식사를 할 때, 휴식을 취할 때도 바닥에 앉아서 하며 매트(mat)를 깔아 놓는 것이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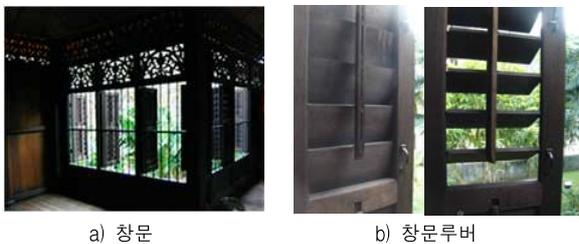
루마 핑홀루의 루마 이부는 전형적인 정방형 형태와 다른 T자형으로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루앙 타무와 세롱 데판은 독립된 영역성을 갖게 되었다.

빌릭은 침실로 사적인 공간이지만 손님을 접대할 때 방을 내주기도 하였다. 이 침실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이 공간은 미혼의 여성들이 사용하거나, 식민지 시대에는 몸을 숨기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두 침실의 입구는 아치 형태이며, 아치 상부는 아름답게 조각된 투각의 패널로 장식되어 있다. 이 프레임에는 두 개의 새와 꽃이 화려하게 채색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신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방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17> 루마 이부의 침실공간

루마 이부의 외벽은 긴 창 의 젠텔라가 둘러져있어 문을 열고 닫을 때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문 상부의 투각된 패널과 함께 통풍과 채광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특히 상부의 두 단으로 구성된 투각 패널은 주택 내부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 내며, 장식성과 심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루버의 조절을 담당하는 막대 장치도 매우 기능적이다.



<그림 18> 루마 이부의 창문

(3) 다푸르(Dapur)

다푸르는 부엌으로 항상 건물 후면에 있고 가장 낮은 바닥높이를 가진다.

루마 핑홀루의 다푸르는 다푸르와 루앙 막간(ruang makan)으로 구성되어 있다. ‘막간’은 말레이어로 ‘먹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음식 준비나 요리, 식사 등을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다푸르와 루앙 막간은 간막이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루앙 막간에는 화로(firebox)와 간단한 식기를 보관하는 수납가구들이 놓여져 있다.



a) 루앙 막간의 내부 b) 다푸르 천정전경

<그림 19> 다푸르의 세부 공간

다푸르는 여성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식사공간이다. 한 옆에 식사용 매트가 깔려져 있으며, 소소한 가사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다푸르의 천장은 루마 이부와는 달리 천정이 따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붕하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잭 루프로 되어 있어 환기에 매우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루마 이부와 다푸르를 연결하는 셸랑은 통로공간으로 방화공간으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데, 일부러 가파른 계단으로 만들어 낮은 사람들이 쉽게 침입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여성손님들은 주로 후면으로 출입하며, 셸랑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음식준비를 함께하는 사교공간으로 사용된다.



a) 셸랑 외부 b) 셸랑 내부

<그림 20> 셸랑의 공간

3.3. 조형적 특성³⁵⁾

(1) 지붕부

발라이의 지붕은 볏짚 페락, 루마 이부와 다푸르의 지붕은 볏짚 판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이 주택에서

35)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조형적 특성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지붕, 벽, 기단으로 정한 것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인, Seo Ryeung Ju, Saari Omar, Young Eun Ko,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lay House in the Kampong Baharu(Kuala Lumpur), GEST(Green Tech, Eco Life &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the Cities of Tomorrow), 1st Ed., Seoul, 2009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는 ‘잭 루프(jack roof)’라는 지붕 장치도 발견되는데, 잭 루프는 샵하우스³⁶⁾ 지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장치로 중심지붕 위에 작은 지붕이 높여져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잭루프는 높여진 틈 사이로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그 빈 공간을 메우게 되어 실내의 온도조절 뿐만 아니라 공기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반주택보다 환기와 통풍을 더욱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루마 팽홀루가 지역 촌장의 주택으로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일반인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 루마 팽홀루 지붕

지붕의 장식적 특징은 루마 이부 지붕에 박공 패널을 덧붙이고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달과 별 문양으로 장식한 것이다. 또한 지붕널의 가장자리 옆면이나 하부에는 반복된 패턴이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꽃, 수직, 수평무늬가 대부분이다. 동물문양은 신의 창조물을 모방한 것으로 여겨져 장식 모티브로 사용되지 않는다. 지붕의 재료는 점토(clay tile)로 타일의 ‘V’ 모양은 신체 부분 중 넓적다리(thigh) 치수에 기준하여 제작한다.

(2) 입면부

루마 팽홀루의 벽은 가로패널 안에 긴 창문들이 둘러져 있다. 수직, 수평의 조각패널들과 창문들은 맞은 편 벽과 대칭으로 위치하는데, 이는 실내에 맞바람(cross ventilation)을 유도하게 된다. 발라이 전면부는 벽이 없고 상부의 조각된 패널과 난간만이 둘러져 있어 개방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주택의 전면부에 위치해 거주자의 위치와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식적 요소가 매우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루마 이부는 벽이 창문들로 둘러져 있어 입면을 통해서도 발라이 보다 사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화려하게 장식된 창문의 상부 패널들과 루버 창문이 집중된 모습 역시 주택들의 다른 공간들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푸르는 상기 두 공간과 달리 벽의 창문 수가 적고 장식이 간소화된 것을 알 수 있어 부속으로 사용되는 작업공간이어서 섬세한 조각이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36) 일층은 상점으로, 상층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유형으로 가로변에 면한 폭이 매우 좁고 세장비가 긴 형태를 띤다. 중국인 이주민들이 도심부에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동남아시아 중국인거주지의 독특한 주거유형이다.

루마 팽홀루에서 사용된 장식의 문양은 세가지로 새, 꽃, 기하학적 무늬이다. 이 조각된 장식 패널들은 심미적인 아름다운 더불어 적절한 환기와 채광을 조절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2> 루마 이부의 벽 외부와 장식들

(3) 기단부

루마 팽홀루의 주춧돌인 펠라픽 티앙은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다. 이 기초는 케다(kedah)지역의 영향을 받았다. 케다 지역에는 ‘Shanty’라는 오래된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약 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루마 팽홀루의 기초도 사원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말레이 인들은 기둥을 기초위에 세우는데 땅에 묻을 경우 건물을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집을 옮기게 될 경우, 통째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분해 가능한 요소를 해체하고, 주택의 주요골조는 그대로 유지하여 여러사람이 함께 들고 간다.

새로운 장소에는 펠라픽 티앙을 준비해 놓고 옮겨온 집을 새 주춧돌위에 옮긴다. 지면과 주택 바닥사이의 빈 공간은 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단의 높이는 공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루마 이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다푸르, 발라이 순이다.

집의 중심공간인 루마 이부가 가장 높은 것은 공간의 중요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a) 펠라픽 티앙 b) 바닥공간의 활용 c) 기단부의 높이차

<그림 23> 루마 팽홀루의 기단부

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조형적 특성으로 가장 강한 것은 뿔뿔판장이나 뿔뿔페락 형태의 지붕으로, 과장된 매스 및 형태는 열대성 기후의 조절기능 뿐 아니라 상징적 표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공통적 특징인 바닥이 올려진 고상식 주거형태는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며, 기단의 높이는 실내 공간의 위계에 따라 그 높이가 결정된다. 즉 루마 이부 공간이 가장 높으며, 세람비, 안정 순이다. 입면은 환기와 통풍을 위해 매우 개방적으로 디자인되었으나, 실내공간에 따라 창문의 형태와 장식도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평면구성에서도 남녀와 공적·사적 영역성이 엄격히 존재하며, 루마 이부를 중심공간으로 하여, 증축되거나 채가 덧붙여지는 형태로 발전되어, 안정, 세람비, 다루프, 셸랑 등이 공간이 분화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루마 팽홀루는 1916년 경에 지어져 현재는 쿠알라룸푸르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는데, 이 집은 마을 촌장의 집으로 안정 대신 발라이가 있는 것이 일반 전통주거와는 다른 점이지만,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공간체계와 조형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지붕은 뿔뿔 판장과 뿔뿔 페락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잭 루프도 설치되어 친환경적 설계기법이 반영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입면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창문과 장식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촌장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단부는 공간에 따라 높이가 다른데, 가장 높은 곳은 루마 이부, 가장 낮은 곳은 발라이이며, 루마 이부의 하단부가 적극적 휴식과 생활공간인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전통주거는 지역적 기후조건에 순응하고 조절하는 기능적 역할 뿐 아니라, 사회의 종교, 문화,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문화적 산물이며, 집을 짓는 건축행위 또한 공동체 및 종교적 행위로서 사람과 신 그리고 우주 사이의 조화와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주거의 형태에 대한 조형적 특성과 물리적 형태를 결정짓게 하는 말레이시아 독특한 주거문화에 대한 분석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는 향후 수행될 말레이시아 현대주거의 독특한 유형과 문화를 분석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형태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꾀하는 국내 주택산업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최병욱.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3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2006
2.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1st ed., Prentice

- Hall, United State, 1969
3. Chen Voon Fee.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5 Architecture, 2nd ed., Archipelago Press, Singapore, 1998
4. Lim Jee Yuan. The Malay House: Redis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2nd ed., Institut Masyarakat, Malaysia, 1987
5. Gibbs, Phillip, Building a Malay House,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Singapore, 1988
6. Oliver, Paul, Built to Meet Needs ; Cultural Issues in Vernacular Architecture, 1st ed., Architectural Press, Italy, 2006
7. Waterson, Roxana, The Living House : An anthropology of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2nd ed., Thames and Hudson, Singapore, 1997
8. Schefold, S. & Domenig, G. & Nas, P.(Eds.). Indonesian houses. 1st ed., KITLV Press Leiden. Netherlands, 2003
9. Ju, Seo Ryeung, Saari Omar, Ko, Young Eun,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lay House in the Kampong Baharu(Kuala Lumpur), 1st ed., GEST(Green Tech, Eco Life &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the Cities of Tomorrow), Seoul, 2009
10. Sparkes, S. & Howell, S. (Eds.), The House in Southeast Asia. 1st ed., Routledge Curzon, London, 2003
11. Syed Iskandar Ariffin, Order in Traditional Malay House form, Oxford Brookes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2001
12.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전통주거 형태와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3. 주서령·김민경.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공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1 no.6, 2010.12
14. Yao-Ru Chen, Syed Iskandar Ariffin and Ming-Hung Wang. The Typological Rule System of Malay Houses in Peninsula Malaysia, JABBE, vol.7 no.2, 2008

[논문접수 : 2010. 10. 31]

[1차 심사 : 2010. 11. 22]

[2차 심사 : 2010. 12. 05]

[게재확정 : 2010. 12. 10]